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08
3. 품목 및 산업 동향	1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신항 2-5단계 3개 선석 하부공사 완료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개발 본격 추진
- 평택·당진항, 육상전원공급설비 2기, 5월부터 시범운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광서북부만항, 제14차 5개년 계획에 국제허브항 지정
- 스리랑카, 인도와 일본에 콜롬보 신규항만 프로젝트 제안
- 뉴질랜드, 항만 공급망 문제 우려 지속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0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1.5% 증가
- 공급량 감소로 중국의 대두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
- 에쓰오일, 차세대 연료전지 기업 투자로 수소사업 진출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 신항 2-5단계 3개 선석 하부공사 완료¹⁾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신항 2-5단계 3개 선석 모두 하부공사가 완료되어 상부공사를 추진 중임
- 2개 선석(700m)은 지난 '19년 7월에 상부공사가 준공되었으며 확장구간 1개 선석(350m)은 지난 '21년 2월 말에 완료됨
- 향후 상부공사가 완료되면 2-5단계는 연간 컨테이너 195만 TEU를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부산 신항 2-5단계 조감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3.0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90&mCode=MN1445\(2021.03.10.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90&mCode=MN1445(2021.03.10. 검색))

② 부산항 미세먼지 측정망 21개소 확대 구축²⁾

-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 설치함
- 항만근로자 및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기와 농도 표시가 가능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부산항 전반에 걸쳐 설치함
- 기존 부산항 미세먼지 측정망은 4개소로 부산항 전반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총 21개소로 확대 구축함
- BPA 본부 및 사업소 3개소, 여객터미널 3개소, 신항·북항·감천항 부두에 15개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함

- BPA는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향후 BPA 자체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산항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3.0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90&mCode=MN1445\(2021.03.10.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90&mCode=MN1445(2021.03.10.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3.0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87&mCode=MN1445\(2021.03.10. 검색\)](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idx=26187&mCode=MN1445(2021.03.10. 검색))

☞ 한편, BPA는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BPA CAAP(Clean Air Action Plan)”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 밝힘

2) 인천항

① 인천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입주기업 모집³⁾

☞ 인천항만공사는 4월 7일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전체 면적 중 일부구역에 대해 입주 기업 모집(제3자 공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공고는 작년 12월 국내외 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사업 제안이 채택된 가운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종 공모 절차임
- 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측은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물류센터와 LNG 냉열공급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으며, 본 공모에 동등한 조건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최종 평가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임
- 콜드체인 특화 구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로, 지속적인 물동량 성장세를 보이는 인천 신항과 연계하여 냉동·냉장화물은 물론 바이오 관련 고부가가치 화물도 유치할 수 있음
- 공모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정, 절차,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른 유형의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외부 심의와 제3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2.2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95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3.0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1795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1.03.08.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개발 본격 추진⁴⁾

☞ 연내 항만재개발사업 설계 완료,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내 위치한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힘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립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812만㎡ 규모임
- YGPA는 '29년까지 약 5,670억 원을 투입해 산업, 물류, 상업, 관광을 포함하는 복합산업물류지구로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지난해 부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중 재개발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내 항만재개발사업은 장래 4만 5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8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및 항만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2.24.), [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00213&mde=view&cntId=855&category=\(2021.03.10. 검색\)](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00213&mde=view&cntId=855&category=(2021.03.10. 검색))

② 여수광양항만공사, 한·중·일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NCQ 유치⁵⁾

🌊 한·중·일 기항 컨테이너 서비스 NCQ 유치로 신규 물동량 창출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보도자료(2021.03.05.)를 통해 한·중·일 노선 컨테이너 서비스 'NCQ(New China Qingdao Pendulum)'를 신규 유치했다고 밝힘
- NCQ 서비스는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에서 1,000TEU급 선박 3척을 투입하고 주당 1회 운항하며, 첫 번째로 투입된 '써니 아이리스'호는 지난 3일 광양항 한국국제터미널(KIT)에 입항함
- 기항지는 광양~청도~대련~부산~니가타~아키타~토마코마이~카마이시~센다이~오나하마~이마리~부산~광양 순임
- YGPA는 NCQ 서비스 신규 유치로 광양항의 주당 컨테이너 정기 서비스는 79.5항차가 되었으며, 중국·일본지역으로의 원활한 화물운송과 신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3.05.),
[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58&category=\(2021.03.10. 검색\)](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58&category=(2021.03.10.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첫 실태조사 시행⁶⁾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첫 실태조사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울산항 해운항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매출액, 사업체 수, 부가가치액, 종사자 현황, 이용자 개선 요구사항, 코로나19 매출 및 고용영향 등임
- 조사 결과 '19년 12월말 기준,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651개사, 울산항 연관 매출액은 4조 4,363억 원, 종사자는 8,073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20년 울산항 해운항만산업 매출 전망에서는 58.4%의 사업체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매출이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울산항 해운항만산업은 울산항을 매개(경유)하여 사업체의 용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화물 운송업 등 8개 업종(화물운송업, 대리중개업, 창고업, 하역업, 항만부대산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육상운송업)을 포함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정책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02.23.)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095\(2021.03.08.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2095(2021.03.08.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육상전원공급설비 2기, 5월부터 시범운영⁷⁾

☀ 해양수산부는 평택지구 동부두 13번 선석, 당진지구 송악부두 11번 선석에 저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설치함

- 해양수산부가 작년 12월 수립한 '주요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평택·당진항 24개 선석에 AMP 설치 계획이 반영됨
- AMP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이 발전을 위해 선박유(벙커C유 등)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으로 부터 전기를 공급받도록 하는 설비임

☀ AMP 운영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3톤의 미세먼지 감축이 기대되며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임

- 경기도는 평택·당진항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선박 오염원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AMP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을 지속 건의한 바 있음

7) 경기도청 보도자료(2021.03.05.),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874&period_1=2021-02-01&period_2=2021-03-10&search=3&keyword=%ed%8f%89%ed%83%9d%ed%95%ad&subject_Code=BO01&page=1\(2021.03.10. 검색\)](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874&period_1=2021-02-01&period_2=2021-03-10&search=3&keyword=%ed%8f%89%ed%83%9d%ed%95%ad&subject_Code=BO01&page=1(2021.03.10. 검색))

6) 포항항

① 신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여기동 청장 취임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33대 청장으로 여기동 신임 청장이 2월 22일 취임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항만, 수산,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항만보안팀장,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이번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취임하였음
- 여기동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포항을 철강 중심 항만에서 크루즈 및 국제페리선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을 통한 국제 관광 중심 항만으로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영일만항 배후단지 적기 조성으로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 중심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함

8)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2.22.), [https://pohang.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675&boardKey=7&menuKey=435&currentPageNo=1\(2021.03.08. 검색\)](https://pohang.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8675&boardKey=7&menuKey=435&currentPageNo=1(2021.03.08. 검색))



7) 마산항

① 서항지구 및 구항 친수공간 이름 전국 공모⁹⁾

- 창원시는 오는 6월 준공하는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 친수 공간의 새이름 공모를 시작하고 4월 2일까지 후보를 모집할 예정임
- 적합성, 지역성, 대중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여 총 4건의 후보를 시상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 공모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모하거나 창원시 해양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함
- 마산항 서항지구는 일제 강점기부터 만든 오래된 항만 구역으로 그간 6월 준공을 목표로 서항부두~1부두~중앙부두 구간을 바다를 낀 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음
- 구항 방재언덕은 '03년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를 입은 뒤 만들어진 재해방지 시설로 해일 피해를 막고자 바다를 매립해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든 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한 곳임

9) 연합뉴스(2021.03.04.)<<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066900052?input=1195m>>(2021.03.08. 검색)

8) 동해·묵호항

① 3월 말까지 해빙기 대비 항만시설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¹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말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과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임
- 동해항 중앙부두를 비롯한 항만시설물 42개소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같은 건설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임
- 해빙기에는 동결과 융해현상의 반복으로 지반이완 및 침하로 인해 구조물 파손, 철근 부식, 축대·옹벽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동해항 항만구역 내 취약한 항만시설물과 외곽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고방지 및 안전사고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3.10.), <<https://donghae.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914&boardKey=7&menuKey=428&currentPageNo=1>> (2021.03.16. 검색)



9) 목포항

①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¹¹⁾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항내 해상교통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항만 조성을 위한 '21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함

- 예방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형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분야 안전관리 강화, 항만 하역안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하역사고 예방활동 확대, 해상순찰을 통한 선박 통항 안전 확보 및 해상교통질서 유지, 용당부두 등 비산먼지 발생 부두 특별 관리 등임

② 서남해역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¹²⁾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봄철 잦은 안개와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봄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함

- 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가상현실(VR)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비상대응 체험교육, 봄철 취약시기 카페리 화물선 불시점검, 봄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등이 있으며, 안전대책 시행 후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된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비상대응 체험교육은 충돌좌초, 항해당직요령, 해상추락 등 비상상황 가상 체험을 포함하며, 카페리 화물선 불시점검 시 선박복원성, 화재예방안전관리, 안전관리체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시에는 구명설비, 기관설비, 조명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3.02),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220\(2021.03.10.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220(2021.03.10. 검색))

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3.0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260\(2021.03.10.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31260(2021.03.10. 검색))

10) 군산항

① 연도, 금란도 등에 항로표지 설치 공사 착공¹³⁾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연도와 금란도, 군산 외항 해상인근에 '21년 9월까지 항로표지(등표 3기)를 설치할 계획

- 등표가 설치되는 곳은 선박 사고가 빈번했던 곳으로 3월에 착공되어 약 6개월 동안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바닷물 만조 시 물속 암초가 보이지 않아 선박 좌초사고가 자주 발생 되었던 곳으로 등표 설치 이후 선박들의 운항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연도에 설치되는 등표의 높이는 22.4m이며 군산외항과 금란도에는 각각 16.5m, 11.3m의 등표가 설치될 예정임

1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03.08.), [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1255\(2021.03.16. 검색\)](https://gunsan.mof.go.kr/ko/board.do?menuidx=1115&bbsidx=31255(2021.03.16. 검색))

☞ 군산항 통항 선박들의 안전과 운항여건 개선을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 통항 위험요소들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계획임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저탄소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¹⁴⁾

- 중국 국무원은 해운·항만·물류 분야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 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탄소 녹색 중심의 산업개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녹색 기술 활성화, 환경 보호법 및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 확대 및 노후 선박 교체, 육상전력 인프라 구축, 도로·철도 등 복합운송간의 녹색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그린 포트 항만 구축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35년까지는 저탄소 녹색 경제 수준을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시키고 '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중국 광서북부만항, 제14차 5개년 계획에 국제허브항 지정¹⁵⁾

- 중국 광서북부만항을 국제허브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025년)에 포함됨
 - 광서북부만은 중국 연해 서남단(하이난 섬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으로 팡청항, 친저우항, 베이하이항 등이 있음
- 국제허브항 지정을 통해 광서북부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제화 전략을 추진 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북부만항에 형성된 '항만-공업-무역' 산업체계를 국외로 확대시켜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발전모형을 구축할 예정임

14) Seatrade Maritime News(2021.03.01.), <https://www.seatrade-maritime.com/environmental/china-seeks-accelerate-green-economy-including-shipping-and-ports>(2021.03.10. 검색)

15) 코리아워킹가제트(2021.03.0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9508 (2021.03.10. 검색)



2) 아시아

① MSC, 아시아-미국동부 신규 컨테이너 정기노선 개설¹⁶⁾

🌊 MSC는 아시아와 미국간 컨테이너 노선 개설을 통해 두 지역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3월 첫째 주에 발표된 새로운 한태평양 서비스 노선은 옌텐(Yantian)~베트남~뉴욕을 거쳐 미국 동부해안에 있는 서버너(Savannah)항과 찰스턴(Charleston)항까지 연결하는 서비스임
- 파나마 운하를 통해 운영되는 신규서비스에 기존 노선에서 운송되던 화물들을 재배분 함으로써 MSC의 서비스 수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② 일본의 6대 항만, '20년 12월 기준 수입 컨테이너 회복세¹⁷⁾

🌊 '20년 12월 기준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등 일본의 6대 항만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117만 6,748TEU를 기록함

-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60만 1,707TEU를 기록한 반면, 수입 컨테이너는 0.8% 증가한 57만 5,041TEU를 기록함
- 항만별로 살펴보면, 도쿄항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36만 6,859TEU를 기록하였으며, 요코하마항 21만 6,676TEU(-0.9%), 나고야항 21만 3,582TEU(-1.1%), 오사카항 19만 1,092TEU(+6.0%), 고베항 17만 6,550TEU(-4.8%), 가와사키항 1만 1,989TEU(-7.2%) 순임

③ 스리랑카, 인도와 일본에 콜롬보 신규항만 프로젝트 제안¹⁸⁾

🌊 스리랑카 정부는 이전에 협의한 콜롬보 동쪽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 계약 취소 이후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을 제안함

- 인도와 일본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항만 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스리랑카 외교 관계자는 신규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와 일본 양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였으나 다른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와 일본이 여전히 스리랑카 항만 개발에 관여할 것이라고 전함

🌊 지난 '19년 5월, 콜롬보 동부 항만개발 프로젝트 협정 이후 인도와 일본은 중국의 남아시아 지역 항만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 특히, 일본은 동부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0.1% 이자율로 40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일본은 인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임
- 인도의 아다니(ADANI) 그룹은 스리랑카 항만 개발을 위해 약 4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일본의 자금 지원없이 자체 자금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 다만 기존의 동부 터미널이 스리랑카 정부가 새로 제안하는 서부 터미널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부 터미널 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6) Seatrade Maritime News(2021.03.16.),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msc-launch-new-asia-us-east-coast-service>(2021.03.16. 검색)

17) JIFFA(2021.03.01.), <https://www.jiffa.or.jp/en/news/entry-6951.html>(2021.03.11. 검색)

18) Hellenicshippingnews(2021.03.08.),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india-japan-cool-to-colombo-offer-of-new-port-project/>(2021.03.10. 검색)

3) 미주

① LA-LB항, 항만 근로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인력난 완화 기대¹⁹⁾

☞ 항만 사업자와 국제 항만·창고 노동조합(ILWU·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은 항만 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를 마련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크루즈 터미널에 마련됐으며, 태평양선주협회(PMA·Pacific Maritime Association) 측은 주말 내 항만 근로자 7천여 명의 백신 접종을 기대함
- 앞서 지난 2월, ILWU가 항만 근로자들의 '공급망 필수 노동자' 인정을 촉구한 후, 3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함

☞ LA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인력 수급을 개선하여 정체된 공급망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반적인 부두 인력이 부족해졌으며, 특히 컨테이너 야드에서의 숙련된 인력 부족이 터미널 혼잡의 주요 원인이 됨
- 지난 2주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항만 근로자들의 근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화물 수요가 많아 장비를 다룰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19) JOC(2021.03.02), <https://www.joc.com/node/3671171>(2021.03.10. 검색)

4) 유럽

① CMA-CGM '20년 탄소배출량, 전년 대비 4% 감소²⁰⁾

☞ 프랑스 국적선사 CMA-CGM은 '20년 탄소배출량이 '19년 대비 4%, '18년 대비 6% 감소했다고 밝힘

- 코로나19 여파로 탄소배출량 감소와 함께 '20년 처리실적 물동량도 전년 대비 2.7% 감소함
- '20년 상반기 컨테이너 운송실적은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지만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연간 실적이 크게 회복되었음
- CMA-CGM은 '0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약 49% 감소시켰으며, 향후 '3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량의 50%를 추가로 감축시킬 계획임

20) Seatrade Maritime News(2021.03.15), <https://www.seatrade-maritime.com/environmental/cma-cgm-reports-4-reduction-overall-emissions-2020>(2021.03.16.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뉴질랜드, 항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 지속²¹⁾

- ☀ 최근 뉴질랜드의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자국의 항만 공급망 문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함
- 우드 장관은 운송 관련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운송 신뢰성 지표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코로나19와 호주 항만과의 경쟁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 문제는 자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임을 주장하며 올해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뉴질랜드 오클랜드항 크레인과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다른 부처들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전함
- 뉴질랜드는 철도회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을 더 신속하게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물 산업의 모든 관계자들이 물류 공급망의 회복을 위해 서로 협력 중에 있음
- 뉴질랜드 각 부처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물류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선박을 통해 공급되는 의약품의 하역 문제와 컨테이너의 원활한 반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함

21) RNZ(2021.02.27.), <https://www.rnz.co.nz/news/business/437299/port-supply-chain-problems-could-continue-minister-warns>(2021.03.10. 검색)

6) 아프리카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컨테이너 부족 문제 심각²²⁾

- ☀ 케이프타운 항만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 포도 및 기타 수출업자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남아공 내 다른 항만도 비슷한 상황임
- 1년간 지속된 수출 중단과 컨테이너 부족은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는 현재 동서항로의 무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남아공 내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포도와 같은 식용 작물의 특성상 수출 시점을 놓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케이프타운 항만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바람과 같은 기상 문제로 컨테이너 부족에 시달린 경험이 많으며 기타 여러 요인들이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이후 미주로 향하는 무역 노선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선사들은 수익이 높은 항로에만 선박을 투입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에서 중동 또는 아시아로 향하는 노선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
- 특히 일부 노선은 남아프리카에서 극동아시아로 향하는 노선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제한된 노선만 중동으로 운송하고 있는 상황임
- 남아공 포도는 수출 컨테이너 부족으로 최근 엄청난 양을 냉장 보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 당국과 해운선사의 협의를 촉구하고 있음

22) Eurofruit(2021.03.09.), <http://www.fruitnet.com/eurofruit/article/184577/container-shortage-in-south-africa>(2021.03.10.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0년 컨테이너 세계 10대 항만 물동량 전년 대비 1.5% 증가²³⁾

☀ 세계 컨테이너 10대 항만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억 5,631만 TEU를 기록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물동량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이후 중국 항만 중심으로 감소세가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 항만별로 상하이항이 4,350만 TEU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싱가포르항(3,687만 TEU), Ningbo-Zhoushan항(2,873만 TEU), 선전항(2,655만 TEU), 광저우항(2,319만 TEU) 순으로 나타남

- 칭다오항은 부산항을 약 20만 TEU 앞서면서 1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하였으며 텐진항 역시 홍콩항을 제치고 1단계 순위가 상승함

(단위: 천 TEU, %)

'20년 세계 컨테이너 10대 항만

순위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 대비
2020	2019		2020	2019	
1	1	상하이항	43,501	43,303	0.5
2	2	싱가포르항	36,871	37,196	-0.9
3	3	닝보-저우산항	28,734	27,535	4.4
4	4	선전항	26,553	25,772	3.0
5	5	광저우항	23,192	23,236	-0.2
6	7	칭다오항	22,005	21,010	4.7
7	6	부산항	21,813	21,992	-0.8
8	9	텐진항	18,356	17,301	6.1
9	8	홍콩항	17,961	18,303	-1.9
10	10	LA/LB항	17,327	16,970	2.1
합계			256,313	252,617	1.5

23)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21-07
(2021.03.10. 검색)

주: 2020년은 잠정치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자료: Alphaliner Weekly Newsletter 2021-07(2021.03.10. 검색)



② 컨테이너선 정시운항률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²⁴⁾

덴마크 해운조사기관인 시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에 따르면 '21년 1월 컨테이너선 정시운항률은 34.9%로 6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함

- 세계 34개 항로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역대 최저치였던 '20년 12월 44.6%보다 약 10%p 하락한 수치임
- 지연도착시간 역시 6.42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기록인 5.74일을 넘어섬

선사별로 살펴보면 머스크그룹 계열인 함부르크수드(46.5%), 머스크(46.3%)만이 40%대를 유지함

- 그 뒤를 이어 집라인 35.2%, CMA CGM 33.9%, MSC 33.8%, 하판로이드 33.7% 순으로 나타남

한편, 시인텔리전스는 현재 항만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선박 운항 안정화가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③ 머스크, 세계 최초 탈탄소 컨테이너선 운항 계획 발표²⁵⁾

머스크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탄소중립 컨테이너선을 개발하여 '23년 역내항로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임

- 2,0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메탄올과 바이오메탄올이 주 연료이며 저유황유(VLSFO)도 함께 쓸 수 있게 이중연료엔진으로 장착할 예정임
- 당초 '30년부터 탈탄소 선박을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기술 발전으로 일정을 7년 앞당김

저탄소 선박 개발은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해운 탈탄소화 연구단체인 머스크맥 키니몰러(Maersk Mc-Kinney Moller)센터와 협력하여 이뤄질 예정임

- 향후 해운업계와 협력해 메탄올, 암모니아 리그닌 같은 차세대 선박 연료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 밝힘

24) 코리아워킹가제트(2021.03.05.),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9490(2021.03.10. 검색)

25) 코리아워킹가제트(2021.03.0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29468(2021.03.10. 검색)



2) 양곡

① 공급량 감소로 중국의 대두 선물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²⁶⁾

- 중국 다렌 상품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공급 부족과 대두 경작지 감소 전망으로 인해 지난 3월 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다렌 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DSAK1의 톤당 가격은 6,058위안(937.2 달러)으로 2.5% 상승함
- '21년 대두 재배 농가 중 상당수가 재배 품목을 수익률이 더 높은 옥수수로 대거 전환할 예정, 이에 중국 내 대두 경작지 면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두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의 수확 지연 또한 중국 내 대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은 GMO 대두 파종을 금하고 있어 중국 내 대두는 주로 두부와 두유를 만드는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GMO 대두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음

26) 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
view/wr_id/5811(2021.03.16. 검색)

3) 시멘트

① 2월 신규 공사수주 BSI, 전월 대비 12.2p 상승한 84.6 기록²⁷⁾

- 신규공사 수주 BSI는 1월에는 전월 대비 급감하였으나 2월 들어 상승 기록함
- 공종별로 보면 주택은 전월 대비 10.9p 하락한 76.6, 비주택 건축은 전월 대비 14.2p 상승한 79.3, 토목은 전월 대비 22.1p 상승한 86.8을 기록하였음
- 3월 신규 공사 수주 전망지수는 2월 대비 17.9p 상승한 102.5로 전망되고 있음
- 공종별로 주택이 24.1p 증가한 100.7로 수주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토목과 비주택 건축은 각각 95.0, 90.4로 예상되고 있음
- 3월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20.6p 상승한 101.4로 전망됨
- 3월에는 흑한기 이후 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기업들이 3월에는 침체된 건설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SI를 포함한 자금조달과 공사대수금 지수도 모두 3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794호(2021.03.02.), http://www.cerik.re.kr/
report/prospect/detail/2476(2021.03.08. 검색)



4) 모래

① '21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전월 대비 소폭 하락²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년 2월 CBSI가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0.8을 기록함

- CBSI는 '21년 1월에 3.4p 하락하였고, '21년 2월에도 0.4p 하락하며 지수가 2개월 연속 80선 초반대에서 횡보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월 조사 당시에는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로 전망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실제 2월에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였음
- 정부가 2월 4일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기대와 달리 지수가 예상만큼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 공사수주 BSI와 건설기성 BSI 등 대부분의 물량 지수들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과 달리 주택 신규 공사 수주 BSI만 전월 대비 10p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정책발표가 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만 3월 CBSI는 전월 대비 20.6p 상승하여 기준선 이상인 101.4를 기록하여 2월 보다 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03.02.)[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76\(2021.03.08.검색\)](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476(2021.03.08.검색))

5) 석탄

① 봄철(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확대²⁹⁾

3월 한달간 석탄발전 58기 중 19~28기 가동정지 및 최대 37기 상한제약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03) 시행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발전출력 최대 80%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힘
- 이에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 가동을 정지하고,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함
-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년 12월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중에 있음
-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02.25.)
[https://www.motie.go.kr/motie/notic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844&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ontent_1&cate_n=&dept_v=&search_val_v=%EC%84%9D%ED%83%B4\(2021.03.11.검색\)](https://www.motie.go.kr/motie/notic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844&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ontent_1&cate_n=&dept_v=&search_val_v=%EC%84%9D%ED%83%B4(2021.03.11.검색))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175달러를 돌파하며 9년만에 최고가 경신³⁰⁾

📈 2월 18일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은 톤당 175.0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이후 최고가를 경신함

- 브라질산 철광석 가격도 톤당 198달러로 급등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보통 중국은 춘절 연휴기간에 산업활동이 둔화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둔화세가 약화되었음
- 메이저 철광석 업체 Vale사의 코로나발 조업 차질과 사이클론에 따른 북호주 수출항 차질 가능성도 철광석 가격을 지지하는데 영향을 미쳤음

📈 중국과 그 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와 세계 조강 증산 전망에 따라 철광석 시황이 당분간 좋을 것으로 전망됨

- Citi사는 칭다오항 철광석 가격이 곧 역대 최고가인 19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가격 유지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30)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2.22),
[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3.08.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03.08.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하락세³¹⁾

📈 미달러 가치 상승으로 위험자산 투자기피가 확산됨에 따라 비철금속 하방압력 발생

- 3월 1주차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 평균이 전주대비 4.8% 상승, 연초 대비 44.7% 상승하는 등 장기국채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미달러 가치 견인
- 이에 위험자산의 투자기피가 확산됨에 따라 동기간 비철금속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전기동과 니켈가격은 각각 전주대비 1.8%, 9.2% 하락함
- 다만, 미국의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상기 하방압력은 부분적으로 상쇄될 전망

3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03.08),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3.11.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03.11. 검색))



8) 목재

① 올해 4,80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³²⁾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함

- '21년에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 헥타르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임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 5천 헥타르에 경제 수종과 옻나무 및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섬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단기 소득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임
-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천 헥타르, '19~'20년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1천 헥타르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을 신규 추진할 예정임
-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1,068헥타르,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156헥타르를 조성할 예정임
- 그 외, 도심권 내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숲 75개소,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4개소, 자녀안심그린숲 50개소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임

32) 산림청 보도자료(2021.03.03.),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601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3.10.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601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3.10. 검색))

2021 나무심기 추진계획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1.03.03.),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601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3.10.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56014&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2&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1.03.10. 검색))

9) 고철

① 중국 철스크랩시장 춘절 이후 3주 연속 상승³³⁾

📈 철강경기 호조로 철광석 스팟가격이 10년래 고공행진 중에 있으며 중국 철스크랩 내수 가격도 춘절 이후 3주째 상승 중에 있음

- 중국폐강철용융협회가 발표하는 철스크랩 가격지표는 2일 기준 톤당 3,170위안으로 전날보다 1.14% 급등하였으며 이는 전일 대비 상승폭으로는 1월 11일 이후 최대치임
- 이에 따라 중국 내수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달 19일 춘절 연휴 이후 오름세를 이어 갔으며 국제 철광석 스팟 가격도 톤당 175달러로 최고 수준을 유지함
- 중국 철강 시장은 경기부양 기대감에 강세를 지속해 열연 유통가격이 '11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음

33) 스크랩워치(2021.03.03.),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75>(2021.03.08. 검색)

10) 철재

① 코로나19 이후 2021년 글로벌 철강 시장 전망³⁴⁾

📈 '20년 상반기 극심한 수요침체로 철강생산과 수요가 급감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로 철강 공급대비 수요가 증가하였음

- 중국의 경우 '21년이 5개년 경제계획인 14.5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철강시장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양호한 경기 성장으로 철강 수요도 '20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20년 하반기부터 생산활동이 재개되고 주택 건설 활동이 이루어지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철강 수요의 회복세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의 철강 수요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둔화가 심화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군으로 대규모 조업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유럽 주요 철강사들은 미국, 유럽지역의 사업부를 매각하고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

34) 한국 철강협회 철강전문지 「철강보」 3월호, p35, <http://www.kosa.or.kr/statistics/KOSAine/boOK202103/> (2021.03.16. 검색)



11) 자동차

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 대해 유감 표명³⁵⁾

☀ 2월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함

- 정부는 '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하는 경유 화물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 운송사업을 허가한 바 있음
- 다만, 국토교통위는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법 개정시,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기반이 와해될 수 있으며 정책 변동성에 따른 사업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함

- 자동차업계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20년부터 전기화물차를 판매하기 시작함
- 전기화물차 판매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으며,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35)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2.25.),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81&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3.10. 검색)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화물차	3,492,173	3,540,323	3,590,939	3,592,586	3,607,997
사업용 화물차	389,424	391,168	406,707	416,412	425,252
사업용 전기화물차	2	2	2	26	2,561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02.25.),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481&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03.10. 검색)



12) 잡화

① '21년 1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192억 5,9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동 기간 31.1% 증가한 106억 7,700만 달러 기록³⁶⁾

📈 1월 기계 산업 수출은 일반 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국별로는 미국(82.2%)과 베트남(26.3%), 중국 지역(22.0%)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1월 기계 산업 수입은 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임, 국별로는 일본(50.1%)과 미국(28.3%), 독일(18.5%)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36)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2월호(2021.02.10.),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1.03.16. 검색)

'21년 1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년 1월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산업 전체	19,259	14.2	10,677	31.1
일반기계업	3,861	-10.5	3,872	47.9
전기기계업	3,502	28.9	1,869	9.5
정밀기계업	1,511	25.4	2,619	68.6
수송기계업	9,556	22.1	1,990	6.8
조선	3,429	24.6	195	-22.3
금속제품업	829	3.2	521	-5.9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3월호(2021.03.12.), <http://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03.16. 검색),
항만수요예측센터 재작성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에쓰오일, 차세대 연료전지 기업 투자로 수소사업 진출³⁷⁾

☀ 최근 에쓰오일은 연료전지 기반으로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프씨아이(FCI, Fuel Cell Innovations)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번 투자로 에쓰오일은 20%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수소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에쓰오일 CEO는 이번 투자로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회사의 지속성장과 정부의 탄소저감 노력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국과 사우디의 합작기업인 FCI는 40여건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연료전지 전문 기업과 개발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중에 있음
- FCI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27년까지 최대 1,000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100MW 이상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중동시장 진출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FCI는 사우디 파트너사와의 1차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중동시장의 기후조건과 법적 규제에 맞는 발전용 및 건물용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형 융복합 제품과 선박에 적용할 해상용 연료전지를 주요 기관들과 함께 공동개발 중임
- 에쓰오일도 새 성장 전략 '비전2030'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유·석유화학·유통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연료전지·리사이클링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37)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03.08.),
[https://www.kpia.or.kr/index.php/bbs/lists/term_id/6/v_mode/user\(2020.03.10. 검색\)](https://www.kpia.or.kr/index.php/bbs/lists/term_id/6/v_mode/user(2020.03.10.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0. 3. 24

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